

사찰 문턱 더 낮춰 주세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찰 늘어... 경사로 등 호응 주차장·유도블럭은 여전히 부족, "종합계획 필요"

'장애인의 날' 맞아 실태조사

"절 문턱이 낮아 졌네요." 장애인들에게 대응전을 비롯한 사찰 건물이 '문턱 높은 곳'이란 이미지를 벗고 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새로 신축되는 건물들이 경사로와 전용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을 잘 갖추는 것은 물론 기존의 사찰도 시설 보완에 나

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완공된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경우 설계당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마련했다.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역시 장애인 전용 화장실과 경사로 등을 설치해 놓았다. 통영 미래사의 경우 장애인 통로와 화장실은 물론 요사채 등 모든 시설에 완벽한 접근성을 갖춘 도랑으로 유명하다. 강릉 현덕사, 용인 법륜사도 설계 당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염두에 두고 건축했다.

또 '큰절'로 통하는 봉은사, 신흥사, 월정사, 직지사, 동화사, 은해사 등 전통사찰들도 전통양식의 대웅전 옆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도 꾸며 호응을 얻고 있다. 올 3월 대웅전 우측에 경사로를 설치한 원주 위봉사의 경우도 장애인들의 성지순례나 신행활동 코스로 부각되고 있다.



원주 위봉사 대웅전에 설치된 경사로.

그러나 아직 사찰은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의 문'을 더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앞선다. 일부 교구본사급 전통사찰 등이 경사로와 화장실 설치에 나선 것과 달리 장애인 편의 시설에 무관심한 사찰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사찰 주차장의 경우 장애

인 전용 공간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고 일부 건물에만 경사로가 설치되고 나머지 공간은 무방비 상태인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또 지체장애인을 위한 시설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럭 등 보다 포괄적인 시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장애인 단체의 지적이다.

전국지체장애인협회 최명숙 간사는 "높은 문턱 등으로 인해 휠체어 장애인이 법당 안으로 진입하기에는 여전히 장애물이 많다"고 지적했다.

사찰을 장애인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중장기 노력도 미미하다. 조계종의 경우 1996년 불교계 최초로 장애인을 위해 불교회관 앞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교구본사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중장기적인 캠페인까지 전개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른 중대도 장애인 시설을 위한 행정지도도 공식적으로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조석영 사무장은 "범종단적으로 편의증진 위원회를 구성해 사찰 건축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방안을 연구하거나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은비 기자



제1차 세계불교포럼 성황

중국 항저우에서 13~16일 개최된 제1차 세계불교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연단에 오른 각국 불교지도자들. 오른쪽부터 라오청세계불교승가회장,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중국정부기 임명한 판첸라마, 마하수메다 텡부 캄보디아 승왕, 사쿠리코오지 일본 종신사 원로, 다쇼상개왕초 부탄문화부장관 / 관련기사 9면

중국 항저우=김주일 기자

"나눔으로 부처님오신 뜻 새기자"

지관 스님 기자간담회, 봉축행사 선포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 행사는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위한 나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부처님오신날의 참뜻을 되새기며, 축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4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열린 봉축행사 기자간

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올 봉축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선언했다.

전국 주요봉축일정표 3면 특히 이번 봉축행사는 '우리도 부처님같이'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을 주제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뜻을 되새기기 위해 '전국어린이 부처님그림그리기 대회' '어린이 연꽃노래잔치' 등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가 준비됐다. 또한 '이웃을 위한 희망의 등 밝히기', '난치병 어린이 돕기 행사인 '3000배 정진기도', '자비의 연꽃달기' 등 자비보살행의 실천을 위한 행사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보조사상연구원 세미나중계 4월 22일 오전 10시30분 buddhapia.com

월정사 수행학림 동참 (033)332-6661~5

영원하지 못한 것들의 쓸쓸함과 달콤함

나그네와 마술사

4월 25일 저녁 8시 50분 열리는 시사회에 독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타뉴스(buddhanews.com) 팝업창을 참조하세요.

부처님·10대 제자 사리 한국온다

보성 대원사티벳박물관 4월 24일~5월 15일, '미륵 프로젝트' 일한

석가모니 부처님과 10대 제자를 비롯한 불교 성인들의 사리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한국에서 열린다.

티베트 '대승불교전통보존회'와 전남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관장 현장) 공동 주최로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원사 티벳박물관에서 열리는 '미륵불상 심장전(藏寶) 사리 세계 순례 전시회'에서는 부처님과 가섭·사리불·목련·아난다 등 부처님 10대 제자, 그리고 나가르주나(용수보살),

예세 초궤 등 티베트 불교 성인들의 사리 1000여 개가 선보인다.

이 전시회는 티베트 '대승불교전통보존회'가 세계 최대의 불교 성지 건립을 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마이트레야(Maitreya, 미륵) 프로젝트'의 일환. 마이트레야 프로젝트는 부처님의 열반지이자 불교 4대 성지 중 한 곳인 인도 쿠시나가르에 152m의 세계 최대 미륵불상을 조성하고 주변에 불교 유물 전시관, 도서관, 박물관, 시청각 극장, 공원 등의 부대시설 건

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50층 높이에 이르는 불상 안에는 대웅전, 선방 등 수행공간이 마련되며,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이는 사리도 이 불상 안에 안치된다. 대승불교전통보존회는 세계 100여 곳에 지부를 두고 있는 티베트 불교 단체로, 마이트레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100여개 도시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티벳박물관장 현장 스님(생명나눔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장은 "이



부처님 열반지인 인도 쿠시나가르에 세워질 미륵불(높이 152m)

번 프로젝트가 원만히 성취돼 부처님 사상이 온 누리에 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 인터뷰 14면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대표 (02)2004-8211~2

www.shmall.net

달마의 氣

名家인터내셔널

건강과 행운의 징표를 그대에게 선물합니다.

고객상담전화 1588-3278

新春大福

대리점 및 총판모집 1588-3278

달마란 예부터 병귀(病鬼)나 사귀(邪鬼)를 물리치는 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맥을 차단하고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달마 목걸이, 귀고리를 착용하여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누리세요. 반드시 행운이 당신곁에 함께 합니다.

• 제조원 : 名家인터내셔널 • 판매원 : (주)S.H상사 (주)S.H상사 -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14 벽산미라지타워 401호

귀고리 핸드폰줄 목걸이